

# “신안 모자반 피해 자연재해 인정해 주오”

## 해양수산부 차관 증도 양식장 피해 현장 방문...전남도 건의 유입 역학조사·전복먹이 활용 등 후속 대책도 마련 나서

전남도와 신안군이 ‘갱생이 모자반’ 피해(광주일보 1월 19일 13면)에 대해 어업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모자반 유입 역학조사와 전복먹이 활용 시험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모자반 피해 다각적 방안 모색=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이 지난 31일 증도면 태평연전과 압해읍 신안 전사장을 방문해 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갱생이 모자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 어민들의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김·다시마 등 양식장 피해에 대해 농·어업 재해대책방안 어업재해

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전남도와 협의해서 건의서를 제출하라’고 답변했다.

이어 4일에는 전남도 최중삼 해양수산국장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도내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는 이상 조류와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수산 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발생할시 어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모자반 피해 역시 해양수산부 어업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이상 자연현상 때문’인

것으로 결정을 내리면 어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복먹이 활용 가능성 연구 착수=신안군과 국립 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 연구센터는 합동으로 지난 28~29일 이틀간 흑산도와 지도, 증도, 임자도 등지에서 모자반 피해 현장조사를 마쳤다.

해조류연구센터는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및 해수분석과 모자반유입 발생원인 등의 역학조사를 실시해 분석에 들어갔다.

또한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3일 흑산면에서 ‘갱생이 모자반’을 전복먹이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유입된 모자반은 열차가 질기고 물에 뜨는 성질이 있어 먹이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생모자반(2개)과 삶은 모자반(1개)을 각각 그물망에 담아 바다 밑 2m

지점에 가라앉혀 전복먹이로 가능한지를 관찰하는 시험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모자반 유입은 인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며 “양식장 등에 유입된 모자반 수거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김·다시마 양식장에 대해 관계기관 역학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확보한 후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어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5200여의 ‘갱생이 모자반’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군 장병과 예비군 중대, 주민, 유관기관 등이 수거작업에 집중해 3일 현재 2278t을 거둬들였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국내 첫 ‘건설슬러지’ 열처리 신기술 개발

### 함평 천지환경 1년6개월 연구끝...환경부 인증 획득

함평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니(汚泥·슬러지 Sludge)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화제다.

함평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천지환경(회장 최성규·사진)은 1년 6개월여의 연구 끝에 ‘스크류 이송방식 및 열 매체 가열에 의한 건설오니의 탈수·건조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최근 환경부(제455호)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기존 건설오니 처리방식은 탈수나 자연건조 방식을 사용했으나, 천지환경은 탈수와 열매체를 통해 건조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시간당 30t(일 8시간 기준 240t)의 건설오니를 처리할 수 있다.

지난 1998년 창업한 천지환경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을 주 업종으로 상온 순환 아스콘과 순환골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고속회전 충격식 파쇄 및 분리장치와 미세분리회수 장치에 의한 순환 잔골재 건식 생산기술’(환경부 제253호)을 개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장애인을 35% 이상 고용하고 있다. 현재 13명의 장애인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등 소외계층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성규 대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니는 대부분 자연건조 방식으로 처리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불편이 크다”면서 “이번에 환경부로 획득한 신기술은 탈수를 하고 열로 건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건설오니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 무안군 작년 농기계 임대 이용 급증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률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안군은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과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현재 무안읍과 일로읍, 해례면 등 3개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중이다. 35종의 농기계 498대를 갖추고 임대해주고 있다.

4월 무안군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건수가 2013년 1497건에서 2014년 225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임대된 농기계는 동력 살분무기가 223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소형관리기(209건), 퇴비 살포기(156건) 순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농번기에 농기계 임대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농기계 고장수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 기종을 갖춰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 “특색사업 발굴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

“지역 농·축협과 협력해 농·축산물 판로확대와 지역특색사업 발굴·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정용훈(56)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장은 “군정의 동반자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함평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평산단의 성공적인 조기분양을 위해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함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출신인 정 지부장은 광주 송일고와 전남대 경영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7년 농협에 입사해 전남지역본부 농업금융 팀장, 신목포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 “요우커 몰려온다” 신안 비금면사무소 중국어 강좌 북적

신안지역에 중국어 학습열풍이 불고 있다.

신안산 농·수산물에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신안을 찾는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 비금면사무소(면장 이정수)는 지난 20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간씩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중국어 기초회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택시·버스 기사 등 관광업 무 종사자, 문화관광해설가와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 50여명. 특히 7년간 초등교사 경력에 있는 중국 출신 이주여성인 박연희(53)씨가 강사로 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농·어업인도 중국어 등 외국어를 배워야 할 시대”라며 “하나 하나 배워 가는 것이 신기하고 보람과 재미가 쏠쏠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신안군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비교 우위자원과 입지 여건을 활용한 대(對)중국 관광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함평 어린이집 전수조사 함평경찰서(서장 박희순) 여성청소년계와 군청·함평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직원들이 합동으로 최근 관내 25개 어린이집·유치원을 방문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함평경찰은 아동학대 피해실태 조사와 함께 CCTV 설치 및 모니터링에 대해 홍보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kwangju.co.kr

## 무안군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대폭 확대

무안군이 내(耐)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원에 생산기반을 현대화·규모화해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무안군은 농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갈수록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사업(6.5ha)에 12억3500만원 ▲고추 비가림 하우

스 지원사업(3ha)에 6억원 ▲원에 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3ha)에 3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또한 군은 양액 재배시설과 무인방제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시설원에 경쟁력 제고사업 1억2200만 원 등 시설하우스 관련 사업에 총 23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군은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의 경우

2011~2014년 4년간 366 농가(19.8ha)를 지원했다. 지난해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66 농가(농가당 660㎡)를 지원했고, 올해는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농가당 지원면적을 990㎡까지 늘렸다.

무안군 관계자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돌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융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 상가 건물

- 회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25억(보2억 월 1,000만)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환영

### 대지, 전용기능 녹지, 전/답

- 남구 노대동 대지 405㎡ 8억5천
- 광산구 우산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618㎡ 1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광산구 삼도동 1중주거지역 전 6,900㎡ 19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32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000원 (0)적장 주거장 적합, 시설완비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새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 주월동 한양아파트

1층 / 28평 / 방3개  
정남향 / 학군최상 / 신혼부부적합  
내부 리모델링 즉시 입주가능

◆ 매매 1억2500만원

◆ 임대 3000만원/45만원(5000만원/30만원)

## 상가 임대

- ▶ 서구 치평동 중흥 스카이31  
1층 / 31평  
800세대 / 시청입구  
우측 GS편의점 입점  
즉시 임점가능 / 상권 최상  
권리금 없음(미용실, 화장품, 옷가게 적합)  
◆ 임대 5000만원 / 350만원

## 땅 매매

- ▶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 900평  
생산녹지 / 나무식재 가능  
투자가치 좋음  
◆ 용자 2억4000만원  
◆ 매가 3억6000만원

010-8676-1900